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관한 調査

金 容 伯 (德成女大圖書館)

1. 머 리 말

이땅에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於焉 20餘年¹⁾ 그동안 1946年 圖書館學의 教育을 爲하여 國立中央圖書館內에 國立圖書館學校를 嚆矢로 하여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延世大學校 附設 圖書館學堂, 成均館大學校 附設 韓國司書教育院, 司書教師講習會, 實務者講習會²⁾ 등을 거쳐서 수많은 司書들이 排出되어 各種 圖書館에서 責任感있는 司書로서 圖書館發展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이와 같은 司書되는 課程을 밟고서 圖書館界에서 他職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不利한 여건들을 무릅쓰고 圖書館 近代化를 爲하여 말없는 奉仕를 하고 있는 司書들이 있는 反面에 잠시 혹은 즉시로 圖書館에서 일하는 것을 外面한채 다른 職業을 擇하여 가는 司書들도 많았다. 이들을 굳이 司書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나 한가지 생각되어지는 事實은 우리 司書들도 이제 自己 能力껏 圖書館 司書職 外部에서 圖書館 發展을 爲하여 關心을 가지고 恒常 圖書館의 動態를 注視하여야 될 줄로 안다.

그래서 排出되는 司書들을 圖書館에서는 그때 그때 吸收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確固不動한 司書職의 philosophy가 問題되는 것이다. 圖書館人으로서 確固不動한 philosophy를 가지고 있는 司書가 自己 能力껏, 實力껏 圖書館界를 떠나 다른 職業에 從事한다면 自然히 그 職業과 圖書館을 聯關하여 생각하게 되며 圖書館 發展에 關心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司書들이 圖書館 안밖에서 圖書館을 爲하여 奉仕하는 가운데 보다 더 急進的으로 圖書館 發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調査 研究한 것은 다른 職業에서 從事하고 있는 司書들 보다 圖書館 안에서 圖書館 奉仕에 從事하고 있는 司書들을 對象으로 해서 質問書를 作成하여 調査 研究해본 것이다.

全國的으로 수많은 司書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보다 廣範圍하게 質問書를 받아서 調査를 해야 될 줄로 생각되었으나 여러 가지 形便上 서울 市內의 大學圖書館과 公共圖書館에서 奉仕하고 계시는 司書들을 對象으로 調査하게 된 것이며 質問에 應答해 주신 司書들에게 感謝 드리는 바이다.

2. 調査 節 次

① 資料 蒐集 方法

社會的 動物인 人間들은 社會生活에 있어서 여러 가지 慾求를 充足시키고자 또한 여러 가지 目的들을 達成시키고자 많은 手段과 方法을 講究하게 된다. 이러한 수많은 手段中에서 人間이 그 어떤 組織體를³⁾ 形成하게 되고 그 組織體의 一員이 되는 것을 重要的 手段으로 看做되고 있다.

人間이 自己 스스로 그 어떤 組織形式을 取함에 있어 여러 가지 形態의 組織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組織形式은 피라미드式 構造를⁴⁾ 이루고 있는 이른바 定型的 組織(formal organization)⁵⁾이다.

오늘 날에 있어서 이 定型的 組織體가 여러 樣으로 나타나며 따라 規模도 크기를 달리하면서 우리들 社會에 또한 우리들 日常生活에 影響을 끼치고 있다.

圖書館의 組織體 形式도 거의 다 위의 피라미드式 構造로서 定形的 組織體라 볼 수 있다.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關한 調査를 하기 爲하여 어떤 特定 圖書館의 組織體를 對象으로 한 것이 아니고 大學 圖書館, 公共圖書館 司書들을 對象으로 하여 職務意識을 調査 研究한 것이다.

資料 蒐集 方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方法은 調査 研究 對象者에게 直接 質問하는 方法이요,

둘째 方法은 個人 및 集團의 行動을 直接 觀察하는 方法이요,

셋째 方法으로는 reference tool을 使用하여 文獻 調査를 하는 方法이다.

여기서 筆者가 採擇한 調查方法으로는 첫째 方法으로 質問書를 作成하여 調查研究對象에게 質問하는 方法을 採擇하였다.

② 質問書作成

質問書를 作成함에 있어서 司書職의 性格과 各種 圖書館에서 奉仕하고 있는 司書들에게 適應할 수 있는 質問을 어떻게 作成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內容으로 質問할 것인가? 따라서 質問書의 回答可能性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留意하여 質問書를 作成하게

되었다.

- 어떤 問題에 關해서 質問을 해야만 必要한 資料가 蒐集될 것인가?
- 質問은 對答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인가?
- 質問은 어떤 方式으로 어떤 條件下에서 할 것인가?
- 質問에 대한 應答은 어떤 方式으로 整理할 것인가?
- 質問에 대한 應答의 妥當性과 信賴性은 있는가? 이상과 같이 質問書를 作成함에 留意하여 다음과 같이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關한 質問書를 作成하였다.

(a) 質問書內容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關한 質問書內容

圖書館事業의 一線에서 勞苦가 많으십니다. 금번 司書들의 職務意識에 對하여 무엇인가 좀 알고자 이렇게 당돌하게 設問을 設定하여 바쁘신 先生님들의 協助을 바라고 싶습니다.

물음의 該當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注意: ① 체크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물음을 읽어 주십시오.

② 問 20은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業種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1. 現職에 제신지 얼마나 오래 되십니까?

()	()	()	()	()	()
1년 미만	1—2 년	3—4 년	5—6 년	7—10 년	11년이상

2. 先生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분류	동서()	편목	동서()	참고업무()
	서서()		서서()	
	고서()		고서()	
	수서()		정간물실()	
사무	기타	대출실()		

3. 先生께서 하시고 있는 일은 貴圖書館에서 얼마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先生自身은 생각하십니까?

()	()	()	()	()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보통으로 중요하다	그다지 중요 하지 않다	전연 중요 하지 않다

4. 圖書館에서 他職員은 先生의 現職을 얼마나 重要한 職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	()	()	()	()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보통으로 중요하다	그다지 중요 하지 않다	전연 중요 하지 않다

5. 上司의 指示나 命令은 대체로 先生의 職務에 直接 關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아주 직접 관련된다	직접 관련 된다	보통으로 관련된다	그다지 관련 되지 않는다	전연 관련 되지 않는다

6. 先生의 職務에 對하여 上部에 무슨 提議를 하면 그 提議는 尊重視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존중시 된다	존중시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7. 貴圖書館의 人事行政은 대체로 全職員에게 公正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직원에 공정하다	() 대부분에게 공정하다	() 반수 정도에 공정하다	() 대부분에 불공정하다	() 모든 직원에 불공정하다
-----------------------	----------------------	-----------------------	----------------------	------------------------

8. 先生님께서서는 現圖書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勤務하고 싶습니까?

() 2년 이하	() 3—5 년	() 6—10 년	() 11—15 년	() 16년 이상
--------------	--------------	---------------	----------------	---------------

9. 現職과 對等한 職이 圖書館外에 있다면 現職을 떠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떠날 생각 없다	() 떠날 생각 좀 있다	() 떠날 생각 아주 많다
-----------------	-------------------	--------------------

10. 現職에서 받는 對遇보다 나은 곳이 있다면 떠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떠날 생각 없다	() 떠날 생각 좀 있다	() 떠날 생각 아주 많다
-----------------	-------------------	--------------------

11. 先生은 앞으로 先生 後孫에게 現職과 같은 職場을 권하고 싶습니까?

() 권하고 싶다	() 권하고 싶지 않다	() 모르겠다
---------------	------------------	-------------

12. 現在 勤務하시고 계시는 일은 先生의 知識이나 技術에 알맞으십니까?

() 전연 알맞지 않다	() 그렇게 맞지 않는다	() 알맞는다	() 아주 알맞는다
------------------	-------------------	-------------	----------------

13. 結婚하셨습니까?

() 결혼했다	() 결혼하지 않았다
-------------	-----------------

14. 先生의 性別은?

() 남	() 여
----------	----------

15. 先生의 宗教는?

() 무종교	()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유교	() 기타
------------	------------	------------	-----------	-----------	-----------

16. 圖書館 職務를 遂行하는데 必要한 性格은?

() 온순해야 한다	() 피벽스러 워야한다	() 근면해야 한다	() 신경질적 이어야한다	() 친절해야 한다	() 참을성이 있어야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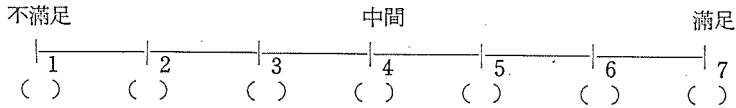
17. 先生은 圖書館 現職을 遂行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매단히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지 않다	() 매단히 자랑스럽 지 않다
------------------	--------------	-----------------	-------------------------

18. 先生은 本職以外에 副業을 가지고 계십니까?

() 없다	() 있다	() 계획중
-----------	-----------	------------

19. 다음 尺度에다 先生의 現職에 對한 滿足度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20. 先生은 轉職을 願하신다면 어떤 職業을 願하십니까? (職業種단 記入하여 주십시오)

(b) 質問의 應答形式

質問의 應答은 質問의 形式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다. 즉 質問形式에는 開放式 質問法(open-end question)과 制限式 質問法(close-end question)의 두 가지가 있다.

즉 開放式 質問法은 應答者가 何等 制限 없이 自己 自身이 自由로 自己意思를 質問에 맞도록 回答하는 形式이고, 制限式 質問法은 위와 反對로 調査研究者가 미리 指示한 制限된 範圍內에서, 즉 이미 設定된 應答欄의 指示에 따라 回答을 하게 되는 方法을 말함이다. 兩 質問法의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開放式 質問法의 例

〈問〉 오늘 日氣는 어떠합니까?

〈答〉 피크닉 가기에 꼭 알맞은 날씨입니다.

· 制限式 質問法의 例

〈問〉 오늘 日氣는 어떠한지 다음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答〉 ① 대단히 좋다 ()

② 그저 좋다 ()

③ 그저 나쁘다 ()

④ 대단히 나쁘다 ()

以上的 두 가지 質問法 가운데 筆者는 制限式 質問法(close-end question)을 擇하였다.

制限式 質問法은 開放式 質問法에 比하여 應答者의 意見을 보다 廣範圍하게, 그리고 自由롭게 反映시키지 못하는 應答이 나올 우려가 있지만, 分析 便宜上, 時間 節約上 適切한 方法인 것이다.

위의 質問書〈問 5〉의 質問을 開放式으로 答하게 하였다면 『上司의 指示나 命令은 대체로 先生의 職務에 直接 關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質問에 對한 應答은 「좋다」「나쁘다」「指示가 너무 많다」「指示가 全然 無意味하다」「너무 命令의이다」等 實로 그 應答內容은 千差萬別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複雜하고 難多한 應答內容은 一見 多樣性이 있고 興味는 있을지 모르나, 그 質問이 解明코자 하는 研究問題의 焦點을 흐리게 할 것이다. 또한 分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難點을 招來하게 될 것이다. 反面 위의 質問書內容에서 보듯이 制限式 質問에 대한 應答은 問題의 焦點인 「指示나 命令의 質問에 對한 關聯度」를 明白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應答이 어느 정도 量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統計的 分析에 많은 便利를 提供해준다고 보겠다.

(c) 質問對象者

資料蒐集方法에서 약간 비추었듯이 어떤 特定圖書館을 指定하여 그 곳에서 勤務하고 있는 司書들을 調査 研究對象으로 하지 않고 大學, 公共圖書館에서 奉仕하고 있는 司書들을 對象으로 200餘枚를 配付하여 回答을 받았으나 겨우 50%를 回收하게 되었다. 即 大學圖書館 57名 公共圖書館 50名 計107名의 回答을 받았다. 이 107枚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研究分析을 하여 본 것이다.

3. 統計的 分析節次와 그 結果

應答者의 記述的 分析에 있어서는 各質問의 應答頻度를 各應答欄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即 質問應答者인 被驗者를 記述的으로 分析하여 보았다.

① 現職에 계신지 얼마나 오래 되십니까? (勤務年限)

(第 1 表)

근무 년한	1 년 미만	1~2 년	3~4 년	5~6 년	7~10 년	11 년이상	무응답	계
인수	21	38	28	8	8	2	2	107

107名의 質問應答者를 勤務年限別로 보면 위의 〈第 1 表〉와 같다. 이 表의 分析結果 4年 未滿의 勤務者가 87名으로 全體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學의 歷史를 따지기에 앞서 現在의 모든 圖書館學의 發展樣相은 지금부터 20餘年前부터라고 하나 本格的인 圖書館學의 시작은 1957年 延世 大學校에 正規課程인 圖書館學科를 新設하여 圖書館學을 講義한 것을 始初로 하여 1959年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1963年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1964年에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에서 正規課程으로 圖書館學을 講義한 데서 부터라고 보겠다. 위의 統計에서 볼 수 있듯이 4年 未滿의 勤務年限이 81%를 차지한 司書들을 위의 各 圖書館學科卒業生⁶⁾들과 關聯시켜 볼 수도 있다.

一般社會職場에서 3~4年 未滿의 勤務者가 統計上으로 過半數를 차지 할 때 普遍的으로 그 職場의 職員의 人事移動이 甚함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圖書館界도 4年 未滿의 勤務者가 81%나 차지하여 職員移動이 甚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② 先生께서 하시는 일은?

(第 2 表)

／동서(12) 분류—서서(11) 고서(5) 서부(7)	／동서(11) 편목—서서(10) 고서(4) 기타(7)	참고업무(19) 수서(21) 정간물실(11) 대출실(22)	제 140
--	--	---	-------

〈第2表〉에서는 technical service와 public service 두 가지로 대별하여 分析할 수 있다.

107명의 應答者가 여기 140명으로 나온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職務를 遂行하고 있다는 事實을 이 統計表로써 다시 한번 確認할 수 있다. 우리 圖書館界의 實情이라고나 할까요? 即 分類者가 目錄도 하게 되고 東書, 西書를 同時에 目錄도 하게 되고 參考業務와 定刊物室를 兼해서 奉仕하는 實情인 것을 알 수 있다. 其他의 7명은 아마 司書主務者들이라 생각된다.

③ 先生께서 하시고 있는 일은 貴圖書館에서 얼마나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先生自身은 생각하십니까?(自身이 본 自己職의 位置)

(第 3 表)

자기직의 위치평가	아주대단 히중요하 다	대단히중 요하다	보통으로 중요하 다	그다지 중요하 지않다	전연중 요하지 않다	계
인수	35	43	26	2	1	107

自己가 본 自己職의 重要性에 對하여 “대단히 重要하다” 이상이 78명으로 全體의 72.8%를 차지하여 圖書館組織의 運營上 希望의인 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司書 各自가 自己가 맡은 職務가 重要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圖書館發展의 近代化를 위하여 迫力 있게 運營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司書들 各自가 自己의 現 職務를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事實은 甚 鼓舞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④ 圖書館에서 他職員은 先生의 現職을 重要的 職이라고 믿고 있습니까?(他人이 본 自己 職의 位置)

(第 4 表)

자기직의 위치평가	아주대단 히중요하 다	대단히중 요하다	보통으로 중요하 다	그다지 중요하 지않다	전연중 요하지 않다	계
인수	9	38	43	14	3	107

〈第3表〉에서 自己가 본 自己職의 重要性에 對하여 重要하다고 하신 분이 104명으로 97.2%를 차지하여 좋은 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第4表〉에서 他人이 본 自己職의 重要性에 對해서도 重要하다고 하신 분이 90명으로 84.1%를 차지하여 높은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反面에 他人이 自己가 본 自己職의 重要性에 對해서 他人은 17명이나 重要하지 않다고 하여 15.8%를 차지한 現象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第3表〉와 〈第4表〉를 比較하여 보면 재미난 分析結果가 나타난다.

應答者는 他職員도 應答者 自身의 職을 重要視하지 않는 者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주 대단히 重要하다」와 「보통 重要하다」와의 應答欄을 보면 〈第3表〉와 〈第4表〉間에는 顯著한 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第3表〉에서는 「아주 대단히 重要하다」가 35명으로 32.7%이었으나 〈第4表〉에서는 9명으로 8.4%로 減少하였고, 「보통으로 중요하다」는 26명(24.1%)에서 43명(40.2%)으로 倍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端的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應答者 생각에 自己職의 重要性에 關해서 他職員이 自己만큼 높게 評價하지 않음을 뜻한다.

心理學上으로 보면 各自가 自己의 職을 重要視하는 同時에 他職員도 自己와 같이 自己職을 重要視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욱 自己 職務를 誠實히 遂行해 보겠다는 意慾이 일어나는 것이다. 反面에 自己가 본 自己의 位置와 他職員이 본 自己職의 位置 사이에 距離가 멀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職務 擔當者는 自己職에 對해서 不安을 느끼게 된다. 이 不安은 他人이 自己職을 自己만큼 重要視하지 않을 때와, 他職員이 지나치게 重要視할 때와의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兩者가 모두 程度가 지나치면 職務者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⑤ 上司의 指示나 命令은 대체로 先生의 職務에 直接 關聯된다고 생각하십니까?(上司로부터의 命令指示)

(第 5 表)

관련도	아주직접 관련된다	직접 관련 된다	보통으로 관련 된다	그다지 관련 되지 않는다	전연관 련되지 않는다	계
인수	9	49	38	10	1	107

위의 〈第5表〉에 의하여 上部로부터의 命令指示는 職務遂行과 어떤 關聯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관련된다」라고 答한 분이 96명으로 90%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上部로부터의 命令指示가 自己職과 關聯이 있어야 한다는 事實은 當然한 것으로서 위의 統計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나 問題는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應答한 司書가 11명으로 約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분들에 對하여 圖書館 管理者들은 좀 더 研究하여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줄로 안다. 어느 圖書館이든지 이와 같이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應答할 司書가 없다고는 단정치 못할 것으로 이분들의 管理가 問題點이라고 생각된다.

⑥ 先生의 職務에 對하여 上部에 무슨 提議를 하던 그 提議는 尊重視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上部에 對한 提議의 尊重視與否)

(第6表)

존중시 여부	존중시 된다	존중시되 지않는다	어떻게될 지모른다	계
인 수	48	21	38	107

〈第6表〉에서 上部에 對한 提議의 尊重視 與否에 對하여 「존중시 된다」라고 應答한 者가 48名으로 45%를 나타내고 있는데 滿足할만한 結果라 볼 수 없는데 물론 適當한 提議인지의 與否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50%도 못 넘는 숫자로 나타나 期待에 어긋난다고 보겠다.

또한 「존중시 되지 않는다」라고 應答한 者는 21名으로 20%를 나타내어 結果적으로 107名中 上部에 自己의 職務에 對하여 아이디어를 提議한 司書들은 69名(64.5%)으로 自己의 提議가 尊重視 되던, 안되던 自己의 意見を 提議하는 傾向으로 흘러야 겠다고 보겠다.

問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라고 應答한 司書가 38名으로 3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隱然中 自己職務에, 또는 自己가 勤務하고 있는 圖書館에 어떤 不滿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⑦ 貴圖書館의 人事行政은 대체로 全職員에게 公正하다고 생각하십니까? (人事行政의 公正度)

(第7表)

공정도	모든직 원에 정하다	대부분 에게 정하다	반수정 도에 정하다	대부분 에 정하다	모든직 원에 불 공정하 다	무응답	계
인 수	8	38	30	13	4	14	107

圖書館管理者로서는 資料整理, 奉仕等に 못지 않게 人事問題가 重要な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다. 人事行政에 能熟한 管理者가 훌륭한 管理者라고 認定 받을 수 있다.

圖書館 司書들의 人事行政을 보다 더 公正하게 施行하기 위하여서는 細密한 職務分析⁷⁾을 바탕으로 하여 職務評價를 實施하여 그 職에 適切한 司書를 配置하여 勤務하게 하여야 될 줄로 안다. 물론 6個月이나 1年마다 司書의 勤務成績評定⁸⁾을 實施하여 勤務成績評定에 나타난대로 公正하게 人事行政을 實施하여야 될 줄로 안다. 管理者의 偏見이나, 感情이나, 請託이 介介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안다. 事實로 公正한 人事行政이란 어려운 問題點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第7表〉에서 全應答者의 43%인 46名은 人事行政이 모든 職員에게 또는 대부분에게 公正하다고 보고 있다. 43%의 公正하다고 答한 司書들보다 13%인 14名이 위의 質問에서 應答을 하지 않았다. 「半數程度에게 公正하다」라고 應答한 司書는 30名이고 「대부분 또는 전부에 불공평하다」에 應答한 司書는 17名이다. 萬一에 無應答者 14名이 人事行政의 不公正을 表明하기를 싫어하

는 者라고 假定한다면 이 30名과 「반수정도 공정하다」에 30名과 「대부분 또는 전부에 불공평하다」에 表明한 前記 17名을 합하면 61名(전체의 57%)이 人事行政에 어느 程度의 疑心 내지 不滿을 품고 있는 者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⑧ 先生께서는 現圖書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勤務하고 싶습니까? (勤務希望年限)

(第8表)

년한	2년 이하	3~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계
인 수	44	37	12	7	7	7

現在 圖書館界에서 司書職으로 勤務하고 있는 대부분의 司書들이 圖書館 司書職을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職場을 찾고 있는 즉 停留場과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로 수없이 들어 왔었다. 그러나 〈第8表〉에 의하면 위의 사실이 證明되기도 남음이 있다.

「2年 以下」 勤務希望者가 44名으로 41.1%를 나타내어 이분들의 圖書館에 對한 마음가짐과 司書職에 對한 philosophy를 어떻게 注入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큰 問題點이다. 물론 보다 높은 俸給 때문에, 他職으로 榮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옮겨야 겠다는 條件들이 있겠지만 圖書館에서 初年兵으로 일하기가 바쁘게 싫증을 내고 他職場을 갖기에 골몰한다면 큰 問題라 아니 할 수 없으며 圖書館 發展上 重要な 問題點의 하나라 생각된다.

「16年 以上」 卽 平生을 圖書館界에서 奉仕하겠다고 한 분은 불과 7名으로 全體의 7% 程度이다.

⑨ 現職과 對等한 職이 圖書館外에 있다면 現職을 떠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對等한 職으로의 轉勤希望 與否)

(第9表)

전근희 망여부	떠날생 각없다	떠날생각 좀 있다	떠날생각 아주 많다	계
인 수	58	35	14	107

人間은 自己가 處한 立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곳으로부터 逃避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위의 質問에서 “對等한” 職이 重點을 두고 調査를 하게 된 것이다. 그 結果 58名(全體의 54.2%)이 「떠날생각없다」라고 應答하였다. 그러나 近 46%인 49名이 對等한 職場이 있다면 現職에서 떠나기를 希望하고 있다.

이 49名中 35名은 轉勤을 좀 希望하고 있고, 14名은 아주 많이 希望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이 對等한 경우에 떠나기를 願하나 그 理由를 研究調査를 통해서 究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⑩ 現職에서 받는 待遇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떠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待遇關係로 轉勤希望與

否)

(第10表)

대우로전근 희망여부	떠날생각 없다	떠날생각 좀 있다	떠날생각 아주 많다	계
인 수	35	37	35	107

〈第9表〉에서와 顯著한 차이는 待遇關係로 近 67.3%인 72名이 現職에서 받는 待遇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現職에서 떠나기를 希望하고 있다고 應答하여 4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卽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즈음은 司書職이라는 어떤 使命感과 威信보다도 實質적으로 生活에 보탬이 되는 待遇問題가 職場選擇에 큰 比重을 차지 하고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여기 待遇란 勿論 經濟의인 뜻이 强하다는 것은 否認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⑩ 先生은 앞으로 先生 後孫에게 現職과 같은 職場을 권하고 싶습니까? (現職의 後孫에의 繼承與否)

(第11表)

계승여부	권하고 싶다	권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계
인 수	24	67	16	107

自己 職에 滿足하고 自己職을 몹시 사랑하면 그것을 自己와 가장 가까운 後孫이나 親戚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人間的 常情이라고 생각한다.

〈第11表〉에 의하면 「모르겠다」에 應答한 것도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83名으로 77.5%를 나타내어 自己 後孫에게 司書職을 권하지 않겠다고 答하였다. 勿論 「모르겠다」에 答한 司書 가운데 自己 後孫이 자라난 뒤 決定하겠다고 해서 「모르겠다」에 答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統計에서 切實히 느껴지는 事實은 하루 빨리 司書職이 他職보다 모든 면에서 더 越等하여 司書 모두가 자기 後孫에게 司書職을 물려 주기를 원하는 時代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권하고 싶다」에 應答한 분 가운데 女子라면 권하겠다고 하신 분이 몇몇 있었다.

⑪ 現在 勤務하시고 계시는 일은 先生의 知識이나 技術에 알맞으십니까? (現職에 대한 適性與否)

(第12表)

적성여부	전연알맞지 않는다	그렇게 알맞지 않는다	알맞는다	아주 알맞는다	계
인수	8	39	55	5	107

한 職場을 좋아하지 않는 理由 가운데 自己가 가지고 있는 技術이나 知識이 職務遂行에 別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여 위와 같은 質問을 해보았다. 그 결과는 〈第12表〉와 같다.

위의 統計에 依하면 全體의 44%인 47名이 現職이 自己 技術과 知識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56%인 60名이 알맞는다고는 하지만 이 중에서 아주 알맞는다고 하는 者는 不過 4.5%인 5名에 지나지 않는다.

圖書館을 合理的으로 運營하려면 우선 適材適所에 司書를 配置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위의 統計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員 107名 가운데 47名이 自己 技術과 知識에 비추어 現職이 適合하지 않다고 한다면 果然 어떻게 圖書館을 能率的으로 그 機能을 다 發揮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⑫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여부)

(第13表)

결혼여부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았다	계
인 수	46	61	107

〈第13表〉에서 107名中 43%인 46名이 既婚者이고 57%인 61名이 未婚者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위 表와 〈第8表〉와 聯關시켜본 結果이다. 〈第8表〉에서 107名中 44名이 現 圖書館에서 勤務希望年限을 2年未滿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44名中) 90%가 未婚者들로 나타나 있다. 즉 結婚前에 他職을 求하겠다는 結果가 나오게 된 것이다.

未婚者들의 定着職으로 圖書館 司書職이 適合하지 않는지 우리 司書들의 問題라고 보겠다.

⑬ 先生의 性別은? (性別與否)

(第14表)

性別與否	남	여	계
인 수	70	37	107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는 勿論이며, 市內 3個 大學校圖書館學科에서 學科 設立 當時부터 紅一點이란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하였다. 이렇듯 圖書館界로 女子분들이 많이 進出하였다고 보겠다. 위 表에서 나타나듯이 107名中 약 34.6%인 37名이 女子분들이다. 筆者는 〈第14表〉와 〈第9表〉를 比較하여 보았다. 즉 現職과 對等한 職이 圖書館外에 있다면 現職을 떠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한 質問에 女子분들은 거의 떠날 생각이 없다고 應答하여 왔다. 이런 현상도 우리가 말로만 듣기로 圖書館 司書職은 女子들에게 適合한 職業이라고 한 것이 위의 統計와 〈問9〉와의 關聯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⑭ 先生의 宗教는?

(第15表)

종교여부	무종교	기독교	카도릭	불교	유교	기타	계
인수	50	36	10	10	1		107

司書들의 宗教現況을 알고 싶어 위와 같이 質問하여 보았다. 나타난 結果는 「무종교」가 50名으로 46.7%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독교」가 36名으로 33.6%를 보이고 있다. 宗教를 가지지 않은 「무종교」 50名을 除外하고 宗教人 57名 가운데 기독교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⑮ 圖書館 職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性格은?
(第16表)

성격여부	온순해야 한다	피벽스러워야 한다	근면해야 한다	신경질적이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계
인수	12		46		56	33	147

圖書館 職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性格을 알고자 위와 같이 質問하였던바 「피벽스러워야 한다」와 「신경질적이어야 한다」에는 한 분도 贊同하는 분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상에 응답해주신 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도 「친절해야 한다」가 56名으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다. 「근면해야 한다」가 46名으로 두번째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온순해야 한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司書職은 奉仕爲主의 職業인 고로 「친절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⑰ 先生은 圖書館 現職을 遂行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現職에 對한 矜持度)
(第17表)

자랑의 정도	매단히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매단히 자랑스럽지 않다	계
인수	5	55	41	6	107

現職에 對한 矜持度を 測定하기 위하여 「先生은 圖書館 現職을 遂行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質問을 하였다. 이 質問의 應答 分析 結果는 위 <第17表>와 같다.

<第17表>를 보면 「자랑스럽다」와 「매단히 자랑스럽다」를 答한 사람은 60名으로 전체의 56%를 나타내고 있다. 「자랑스럽지 않다」와 「매단히 자랑스럽지 않다」를 露骨的으로 表現한 사람이 47名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즉 47名이 結果的으로 現職에 對하여 자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機關이고 職員 大多數가 自己職에 대해서 어느 程度의 자랑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勤務士氣가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本調査對象인 圖書館 司書들은 自己職에 對해서 慙慾的으로 일할 만큼 士氣가 높다고는 斷定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우리 나라의 모든 職場의 職員들은 「감투慾」이 強하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위의 統計를 보면 44%인 47名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表現한 裏面에는 그분들의 職位問題도 包含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勿論 自己職의 將來性과 또 永久性도 內包되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職位가 낮을수록 自己職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現象이 있다.

그러므로 職位如何를 莫論하고 自己職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條件을 形成하지 않고는 能率의 行政을 期待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한다.

⑱ 先生은 本職以外에 副業을 가지고 계십니까?
(副業與否)

(第18表)

副業與否	없다	있다	계획중	계
인수	74	7	26	107

위의 質問은 副業與否를 알고자 한 質問이다. 107名中 74名이 副業이 없다고 表現하였고, 7名이 現在 副業을 가지고 있다고 答하였다. 나머지 26名은 副業을 計劃中이라고 하였는데 이분들의 成分分析이 必要할 줄로 안다. 副業을 하기 위한 計劃인지 아니면 轉職을 하기 위한 計劃인지 遊動的인 이분들의 자세가 圖書館界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나마 있을 줄로 생각된다. 아니면 司書職으로서 어떤 職務를 맡아야만 副業을 할 수 있느냐 만큼 計劃을 세울 수 있는지도 疑問點이다. 司書는 司書職 本然의 任務만을 수행하기도 힘들고 時間的으로도 어렵다고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⑲ 다음 尺度에다 先生의 現職에 對한 滿足度を 체크하여 주십시오 (現職에 對한 滿足度)
(第19表)

만족도	1	2	3	4	5	6	7	계
인수	7	4	15	51	17	6	7	107

<第19表>에서 얻은 結果를 다음과 같이 分析해 볼 수 있다. 즉 1과 2를 묶어서 「不滿」을 表示하는 것으로 보아 第1集團으로 보고 3, 4, 5를 한데 묶어서 中間位置로 보아 「그저 그렇다」라고 第2集團이라 보고 6, 7을 한데 묶어서 「滿足」의 表現으로 보아 第3集團으로 보자.

그러면 107名 가운데 現職에 대한 不滿을 表明한 司書는 11名으로 10.2%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中間的인 見解를 表明한 司書는 83名으로 77.5%로 단연 높은 比率로 나타난 現象을 볼 수 있다. 또 第3集團에서 보면 「滿足」하다고 表明한 司書는 「不滿」을 表明한 司書보다 2名이 더 많은 13名으로 12.2%를 나타내고 있다. 역시 司書職이란 우리 주위에서 듣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滿足스러운 職業이 아니다.

그렇다고 他職業보다 못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로 다시 말해서 司書職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職業이란 것을 엇 볼 수 있다. 바라기는 빠른 時日內로 司書全體가 몇몇하게 自己의 職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滿足스럽게 생각할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좋은 施設과 豊富한 豫算의 뒷받침이 있다고 하여도 司書가 자기 職에 對하여 不滿일 때 그 圖書館이 發展할 수 있으리라고는 期待하기 어렵다. 그런고로 近代 圖書館의 四大要素가 있다면 建物, 資料, 司書, 管理 이상 4 가지를 들 수 있겠다. 훌륭한 施設과 豊富한 資料와 使命感 있는 司書가 있다고 한다 해도 合理的인 經營과 公平한 管理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4 가지 要素가 잘 料理되는 가운데 圖書館도 隱然中에 發展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筆者는 合理的인 管理를 하기 위하여서는 「司書」에 對해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먼저 司書들이 자기 職務에 對해서 얼마나 滿足하고 있는가? 그 與否를 알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되어 <問 19>를 質問하게 된 것이다. 結果의으로는 他職場에서의 마찬가지로 圖書館 司書들로 中間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저 그렇다」가 77.5%를 나타내어 크게 失望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希望의인 것도 아니라 생각되어진다. 이 中間位置의 司書들을 어떻게 「滿足」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現在 韓國圖書館界의 研究課題라 提言하고 싶다.

㉔ 先生은 轉職을 願하신다면 어떤 職業을 願하시니까? (職業種만 記入하여 주십시오)

위의 質問에서 107名中 60名이 應答하여 왔다. 나머지 47名은 無應答으로 轉職希望이 없는지 알 수 없다. 60名이 希望하는 職業의 種類를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職業種	人 數	職業種	人 數
事業	33	文筆家	1
會社經營	2	外交官	2
會社員	1	生産業	1
教育者	2	公務員	1
文化事業	1	美術家	1
技術職	1	企業體經營	2
法官	1	行政家	1
家庭主婦	1	對民奉仕機關	1
行員	1	權力家	1
司書職	1	貿易	1
도큐멘탈리스트	1	記者	1
圓藝師	1	財務職	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種의 職業이 羅列되어 있는데 그 중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는 職業은 「事業」을 經營하고 싶다는 것이다. 亦是 經濟的인 뜻이 强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結 論

692名의⁹⁾ 司書들 가운데 겨우 107名의 司書들로부터 質問書를 받아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關하여 分析하여 보았다. 不過 $\frac{1}{7}$ 의 司書들로부터 質問書의 應答을 받아 分析하여 본 것이 全體 司書들의 職務意識을 代辦할 수 있을는지 그 信賴性和 妥當性에 대해서 얼마나 認定이 높게 될는지 調査를 한 筆者 自身도 滿足스럽다고는 보지 않는다.

200名의 司書들에게 配付한 質問書 가운데 107名만이 應答을 하여 주어 이 107名으로부터 받은 質問書 應答을 가지고 全般的인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對해서 조금이나마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 107名으로부터 받은 質問書의 應答을 가지고 그 信賴性和 妥當性도 細密히 檢討하여 보았다.

우리가 어떤 問題를 調査研究코자 하여 質問書를 同一한 質問調査 對象者에게 同一한 質問方式으로 同一한 條件下에 2~3次 調査하였을 때 얻어지는 調査結果의 一致度를 따져 볼 때 明確히 一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몸무게를 同一한 條件하에 同一한 體重器로 2~3次 測定하였다고 하자. 測定할 때마다 相異한 體重의 結果가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 體重測定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우 우리는 이 體重의 測定の 信賴度는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質問에서도 107名의 司書에게 2~3次 同一한 質問을 하여 그 應答을 받았다고 하면 꼭 같은 分析結果가 나오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問題는 처음 質問書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慎重히 被質問者가 質問에 應答하여 주었으며 얼마나 關心 있게 質問에 答하여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筆者는 이 質問書를 받기 위하여 各 圖書館의 司書 한분에게 仔細한 質問內容과 質問目的을 說明하여 부탁하여 이 質問書의 應答을 받았기에 위의 統計分析結果의 信賴度와 妥當度를 90% 이상으로 認定하고 싶다. 그 一面으로 어떤 司書는 <問 13>에 「결혼했다」와 「결혼하지 않았다」 사이에 <約婚中>이라고 親切히 應答해 주었으며 또 어떤 司書는 <問 11>의 先生 後孫에게 現職과 같은 職場을 권하고 싶습니까?에 대하여 <女子>라던 권하고 싶다 라고 應答하여 왔으며 또 한분의 司書는 <問 19> 滿足度를 表示하는 데 있어서

3~4 사이에 3.5라 기입하고 거기에 체크하여 준 것으로 보아서 이 質問書의 應答分析의 信賴性과 妥當性은 높다고 본다.

그러나 이 質問書의 統計分析을 하고 나서 또 한가지 알고자 하는 點은 200名 가운데 겨우 107名이 應答하여 주었고 나머지 93名은 不應하였는데 이분들이 왜 應答을 하여주지 않았을까? 이분들의 性格은 어떠한가? 이상과 같이 이분들에 對하여 좀 더 알고싶은 것이 하나의 問題點이라 생각한다. 이 點까지 筆者가 分析研究하여 보았더라면 좀 더 司書職의 職務意職의 調査에 忠實하였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간절하다.

또 한가지 이 統計分析結果에서 살펴보지 못한 點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不滿足」의 原因을 규명하여 보지 못하였다는 點이다. 이것은 調査者가 筆者 혼자로서 金錢과 時間等 여러 가지 條件上 이 問題에 對하여 分析을 못하였던 것이다. 問題는 不滿足을 느끼고 司書들의 不滿足의 原因을 알아서 어떻게 滿足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研究課題라고 생각된다.

利潤을 追求하는 모든 企業體는 勿論이러니와 圖書館 利用率을 높이면서 圖書館 本來의 目的에 到達하기 위하여 卽, 圖書館 近代化를 爲하여 우리가 無視할 수 없는 것의 하나가 司書들의 人事管理라 보겠다. 날로 發展하여 가는 圖書館 組織¹⁰⁾으로 因하여 司書들의 人事移動도 심한 듯하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原來의 目的인 效率의 圖書館 運營과는 反對되는 結果를 造成하기 쉽게 된다. 司書들의 人事移動目的이 이와 같이 效率의인 圖書館 運營에 있다면 適在適所의 原則이 가장 公正하게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公正한 適在適所의 原則은 어디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司書들의 效率의 執務를 願한다면 그들의 執務意慾, 卽 士氣를 둔구지 않고서는 不可할 것이다. 이 士氣는 司書들의 具體의이고 現實의인 態度, 特히 自己職에 대한 態度의 把握이 先行되지 않고는 昂揚될 수가 없다고 보겠다. 아무리 圖書館 組織體가 優秀하다고 하더라도 그 組織人인 司書들의 人間의인 面이 無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圖書館組織體의 將來도 이 司書들에게 달려 있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이 司書들의 職務意識에 關하여 몇가지 알아 보았던 것이다.

<參考文獻>

- 1) 圖書館實務便覽. 韓國圖書館協會, 編. p.43.
- 2) 圖書館實務便覽. Ibid. p.56—62.
- 3) 金容伯. “司書職의 人事管理; 職務分析에 關하여”. 도협월보. 1967. 3. p.12—14. 위의 記事에서 組織論에 關한 것을 參考하시기 바랍.
- 4) 피라미드式 構造란 한 機關의 權力配置에 있어 最高位者는 1人, 第2位者는 2人, 第3位者는 3人 式으로 權力分布가 下位에 내려 갈수록 사람의 수는 많아지지만 權力은 줄어지는 形態의 組織을 말함.
- 5) 定型的 組織이란 政府나 大企業體와 같이 成文規範과 組織形式이 公約으로 뚜렷한 超個人的 機關을 말함.
- 6) 司書職의 職務意識에 關한 調査를 1966年度 現職에 있던 司書들로부터 質問書 應答을 받았으며 1966年度 現在 正準司書課程을 밟고 排出된 司書數를 “圖書館實務便覽”에 記錄된 것을 引用하여 보면
 -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卒 137名
 - 延世大學校大學院 卒 7名
 - 延世大學校附設 韓國圖書館學堂卒 139名
 - 延世大學校實施 司書教師課程 163名
 -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卒 184名
 -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卒 9名
 - 梨花女子大學校實施 司書教師課程 122名
 -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는 1967年度부터 卒業生 排出
 - 成均館大學校附設 司書教育院卒 43名
 - 韓國圖書館協會主催 圖書館實務講習修了者數 992名
- 7) 金容伯. “司書職의 人事管理; 職務分析에 關하여”. 도협월보. 1967 3—4.
- 8) 金容伯. “司書職의 人事管理; 勤務評定에 關하여” 도협월보. 1966. ① 4 : 150—152, 142. ② 7 : 303—309, 317.
- 9) 692名이란 숫자는 1966年 3月 31日 現在 韓國圖書館一覽의 統計에서 서울 市內의 公共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서 勤務하고 있는 司書數를 말함.
- 10) Ranganathan 博士가 그의 圖書館學의 5法則中에서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이라고 말하였듯이 圖書館 組織도 現代의 모든 企業體나 行政機關과 같이 發展되어 나가는 것이다.

● 사랑에 국경없고 봉사에 차별없다

● 집집마다 적십자 사람마다 봉사원

(赤十字標語)